

력사기록을 통하여 본 일본반동들의 독도《령유권》책동의 부당성

김 은 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일본반동정부는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미제의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뻔뻔스럽게 행동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입니다.

독도는 본래부터 우리 나라 섬입니다. 독도가 예로부터 우리 나라 섬이었다는것은 구체적인 력사자료가 명백히 실증해주고있습니다.》(《김정일전집》 제7권 454페이지)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일본반동정부의 행위가 날로 더욱 우심해지고있다.

전 일본외상은 국회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의 령토》라는 허튼 나발을 또다시 불어댔다.

또한 일본반동정부는 남조선인민들이 독도에 성노예소녀상을 세우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다께시마(독도)는 원래부터 일본의 고유한 령토》이기때문에 이러한 시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는데 하면 어느 한 체육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의 지도에 《Dokdo》라고 표기하였다고 하여 그 무슨 정치선전을 하고있다고 결코들면서 갖은 샛대질을 다하고있다.

더우기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일본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일본고유의 령토》로 못박은 새 학습지도요령해설서라는것을 공개하는 놀음을 계속 벌려놓고있는것이다.

학습지도요령해설서는 일본의 소, 중학교들에서 배워주는 내용과 관련하여 문부과학성이 방향과 기준을 정해준것이다.

이것은 일본반동정부가 독도를 《빼앗긴 땅》으로 인식시킴으로써 새 세대들을 복수심과 침략사상으로 길들여진 광신자들로 키워 이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독도를 강탈하고 나아가서 전 조선을 집어삼키며 대륙으로 진출하여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해보자는것이다.

독도가 력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령토라는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반면에 독도에 대한 《령유권》을 고집하는 일본반동들의 주장이 아무런 타당성도, 법적근거도 없는 억지논리, 강도적궤변이라는것은 폭로되였다.

일본반동들이 악랄하게 떠들어대고있는 독도《령유권》책동은 아무런 력사적근거도, 논리적타당성도 없는 하나의 랑설에 지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력사기록을 통하여 일본반동들의 독도《령유권》책동의 부당성을 다시한번 까밝히려고 한다.

일본반동정부의 독도《령유권》책동의 부당성은 무엇보다도 독도를 제일먼저 발견하고 개척하고 령유권을 행사한것이 우리 선조들이기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수천년전인 고대시기부터 고조선, 진국사람들은 울릉도는 물론 독도에 까지 진출하였다.

1882년 부호군 리규원이 울릉도를 조사하러 갔을 때 그곳에 고대조선사람들이 쓰던 독특한 무덤인 고인돌무덤 수십기가 남아있다고 밝힌것(《울릉도검찰일기》)은 그 일단을 보여준다.

울릉도에 고대조선사람들이 살았다는것을 확인해주는 고인돌무덤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로부터 제일 가까이에 있는 독도에 조선사람들이 건너가 물고기잡이를 비롯한 생업활동을 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삼국시기에도 고구려, 신라의 주민들은 울릉도, 독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였다. 《삼국유사》의 연오랑과 세오녀전설은 기원후 첫 시기부터 신라주민들이 동해의 울릉도-독도를 거친 항해길을 따라 일본의 이즈모지방에 진출하여 선진문화를 보급한 사실을 보여주 고있다.

특히 고구려는 4세기말부터 삼국통일을 위한 남방진출을 강화하면서 5세기말~6세기 초에 신라의 청하(경상북도 포항시)지역에까지 진출하여 울릉도, 독도를 자기의 령역에 포함시켰다.

이 시기 고구려사람들은 동해의 울릉도-독도를 거친 항해길을 따라 일본의 노포반도에 진출하여 나가노현과 그 주변일대에 퍼져살면서 자기들의 선진문명을 전파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기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우산국의 주민들이 고구려사람들이었다는것을 명백히 알수 있다.

최근시기 울릉도에서 고구려사람들이 쓰던 고배(굽높은 잔)가 발견된것은 그 일단을 증명해준다.

독도의 첫 이름으로 이 시기 불리운 우산도의 의미를 보아도 이 섬이 조선의 섬, 고구려의 섬이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우산도란 이름은 울진현(경상북도)의 고구려때 이름인 우진야현에서 기원되었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5 울진현 건치연혁조

우진야현의 우자는 삼국시기 웃쪽, 웃부분이라는 우리 말의 한자식음을 옮긴것이 고진야자는 돌이, 드르, 들이라는 들판, 벌판의 뜻음김으로서 웃쪽의 들판, 높은 지대를 의미한다.

우산도의 우자도 우진야의 우와 같은 우리 말의 한자식음음김이며 산자는 뫼라는 산자의 뜻음김으로서 역시 웃쪽의 산 즉 높은 지대를 가리키며 따라서 그것은 우진야현의 이름과 같은 말이다.

울릉도의 처음 이름인 무릉, 우릉이란 이름도 우산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우진야현의 이름에서 기원되었다.

이러한 지명유래는 당시 우진야현(울진현)을 비롯한 동해안의 주민들이 울릉도를 개척하고 독도에 가서 물고기잡이를 하면서 역시 같은 고장의 이름인 우산(우산도)이라는 이름을 붙이였다는것을 말해준다.

그후 신라는 북쪽으로 령토를 확장하면서 512년에 우산국을 자기 주권에 포함시키였다.*

*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지증마립간 13년

이리하여 삼국시기 우산국은 정식 울릉도, 독도로 이루어진 우리 나라의 독자적인 지방행정단위로 되였다.

발해와 후기신라가 병존하던 시기에 우산국은 후기신라에 속해있었다.

첫 통일국가 고려시기에 우산국은 초기부터 고려에 소속되어 그 통제속에 있었고 12세기 중엽이후 우산국이 조락하면서 고려의 울진현에 편입되였다.*

* 《고려사》 권1 태조 13년 8월

《고려사》(권58) 지리지에서는 울릉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그 주석에 《우산(독도), 무릉(울릉도)은 본래 두개의 섬으로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은 날이면 바라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두 섬이 뿔레야 뿔수 없는 고려의 섬, 조선의 령토라는것을 지리적으로 담보하고있다.

그후 조선봉건왕조는 초기부터 왜구의 침입이 잦은것과 관련하여 섬주민들을 보호, 통제하려는 목적밑에 섬을 비어두고 수토관(조사관)을 정상적으로 파견하여 조사장악하고 통제하는 일시적인 《공도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조선봉건왕조의 이러한 《공도정책》에도 불구하고 울진현을 비롯한 조선동해안의 주민들은 울릉도에 건너가 살면서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으며* 독도에까지 가서 물고기잡이를 하였다.

* 《태종실록》 권33 12년 4월 기사, 16년 9월 경인, 17년 6월 을축

조선봉건왕조 전반기 독도는 삼봉도라고 불리웠는데 이것은 15세기경에 조선동해바다가 주민들 특히 영안도(함경도)주민들이 독도에 가서 물고기잡이를 하고 조사하는 과정에 두개의 큰 바위섬(동도, 서도)과 그가운데 있는 작은 바위섬을 보고 새롭게 불인 이름이였다.*

* 《성종실록》 권15 3년 2월 경오

15세기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와 16세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울릉도인 무릉도와 독도인 우산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우리 나라 섬으로 명백히 서술하였다.

또한 조선봉건왕조는 일본의 쓰시마도주가 《거주》요, 《탐사》요 하면서 교활한 술책을 쓸 때마다 제때에 타격을 주어 그들의 책동을 단호히 일축해버리였다.

특히 경상도 동래의 어민 안룡복은 울릉도, 독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침략과 략탈이 강화되자 1693년(숙종19년) 일본의 호끼번주를 찾아가 담판을 벌려 그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섬이라는것을 확고히 인정하게 하였으며 당시 일본 도꾸가와막부의 관백에게서 서계(확인문서)까지 받아내는 과감한 투쟁을 벌리였다.

18세기말부터 독도는 가지도라고 불리웠는데 가지는 물개라는 말로서 이 시기 이 섬에 물개가 많은데서 유래되였다.*

* 《증보문헌비고》 권1 여지고19 관방1 해방1 동해 울진조

이 이름 역시 우리 선조들이 독도에서 가지 즉 물개잡이를 비롯한 생산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 붙여놓은 이름으로서 이 섬이 우리의 땅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우리 선조들이 제작한 《조선총도》(1530년), 《강원도》(1530년), 《조선8로지도》(17세기), 《여도》(18세기 전반기), 《조선총도》(18세기 전반기), 《동국도》(18세기 후반기), 《동국대전도》(18세기 중엽), 《조선전도》(18세기 후반기), 《해좌전도》(1820년경) 등 옛 조선지도들에서는 독도를 조선의 령토, 섬으로 그려놓았다.

조선봉건왕조는 1882년에 리규원을 울릉도검찰사로 하는 102명의 현지조사단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조사한데 이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특지의 인민들을 울릉도로 이주시켜 농경지를 개척하였으며 울릉도의 행정관리로서 도장을 임명하여 파견하였다.

그리고 1883년 3월 개화파의 중심인물인 김옥균을 《동남제도개척사 겸 포경사》(동해안과 남해안의 여러 섬들의 개척과 고래잡이를 맡은 관리)로 임명하여 울릉도, 독도령유권도 말아보게 하였으며 당시 울릉도에 와서 비법행위를 하던 일본인 254명을 전부 쫓아버리게 하였다.

조선봉건왕조의 이러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많은 주민들이 울릉도에 건너가 살게 되면서 당시 섬주민은 400여호에 1 700명으로 늘어나고 경작지는 무려 7 700마지기나 되었다.

울릉도의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그 부속섬인 독도에 대한 이곳 주민들의 활동도 더욱 적극화되었다.

1904년 11월 일본군함 《쓰시마》호가 독도에 대한 침략을 하면서 이곳을 조사하고 일본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매해 여름이 되면 울릉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섬에 건너와서는 섬우에 자그마한 집을 짓고 부근에서 어업에 종사한다.》고 기록한것은 그 일단을 보여준다.

독도에서 우리 주민들의 생산활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반면에 이곳에 대한 일본의 침입이 자주 일어나자 조선봉건왕조는 1900년 10월 25일 칙령41호를 공포하여 독도에 대한 조선의 령유권을 정식 선포하였다.*

* 《관보》 제716호 1900년 10월 27일

이처럼 우리 나라의 옛 자료들은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고대시기부터 근대시기까지 조선사람들에 의하여 개척장악되고 리용되었으며 우리 나라의 주권이 단 한번도 포기되어본적이 없는 명실공히 우리 나라의 섬이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일본반동정부의 독도《령유권》책동의 부당성은 다음으로 일본의 옛 사료들에도 독도가 조선의 령토로 반영되어있기때문이다.

중세와 근대, 현대에 걸치는 일본측 사료들에는 독도가 조선의 령토로 되어있어 일본반동들의 독도《령유권》책동의 허황성을 폭로하고있다.

독도가 일본측 사료들에 나타나기 시작한것은 17세기부터이다.

이때로부터 근 300년간에 걸쳐 일본의 거의 모든 사료들에는 독도가 조선의 섬으로 기록되어있다.

우선 중세기에 만들어진 거의 모든 일본측 사료들은 독도를 우리 나라의 섬으로 명백히 기록하고있다.

일본사료인 《호끼민담기》에는 호끼주의 요나쵸지방 어업가들인 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가문이 1616년에 호끼(백기)번주(우두머리)에게 죽도(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허락해 줄것을 제기하는 《죽도도해면허》를 제출하였는데 그들의 신청에 대한 승인이 당시 호끼번주의 사망으로 중단되었다가 그 다음해 이곳에 파견된 도꾸가와막부의 관리 아베를 통해 다시 제기되어 막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기록되어있다.*

* 《호끼민담기》 1 (오다니와 무라가와가 바다를 건너 왕래한 일)

《죽도도해면허》는 말그대로 죽도인 울릉도가 있는 수역으로 건너갈수 있다는 허가증으로서 자기 나라의 바다와 섬이 아닌 울릉도수역에서 물고기를 잡겠다는 요청을 《승인》한 문서이다.

따라서 《죽도도해면허》는 울릉도가 자기 섬이 아니라는 일본정부의 《확인서》이며 그 부속섬인 독도도 일본섬이 아니라 조선의 섬이라는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이다.

《송도도해면허》 역시 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가문이 1661년에 일본령해를 벗어나 송도인 독도수역으로 나갈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하여 도꾸가와막부의 승인을 받은 허가증이다.

일본어업가들의 《송도도해면허》와 그에 대한 막부의 승인은 당시 일본의 민간인들이나 도꾸가와막부정부가 독도(송도)를 자기의 섬으로 여기고있지 않았다는것을 공식 인정한것으로 된다.

또 다른 자료들인 《은주시청합기》는 이즈모(은주)관리 사이토가 이즈모번주의 지시로 1667년에 일본의 서북변방의 섬인 오키도(은주)를 답사하면서 이곳과 그 주변바다와 섬들을 조사하여 제출한 보고서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두 섬(울릉도와 독도)은 무인도인데 고려(조선)를 보는것이 마치 이즈모에서 오키도를 보는것과 같다. 그런즉 일본의 서북경계는 이 주(은주)로써 그 한계를 삼는다.》*라고 기록되어있다.

* 《은주시청합기》 권1 국대기부

《은주시청합기》의 이 사료는 이즈모관리가 당시 상부의 지시로 실지답사와 조사에 기초하여 편찬한것으로 하여 신빙성과 사료적가치가 높다.

17세기에 편찬된 일본사료들에는 안룡복사건과 쓰시마와 도꾸가와막부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섬들로 정식 인정한 내용이 들어있다.

죽도(울릉도)와 그밖의 한 섬(독도)을 조선의 섬들이라고 인정한 도꾸가와막부정부가 1696년 1월에 내린 결정을 기록한 《조선통교대기》의 사료, 1696년 10월 쓰시마의 신임도주가 조선봉건국가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령토라는것을 확인한 도꾸가와막부정부의 결정지시문을 전달한 내용을 담고있는 《죽도기사》의 사료, 이 시기 조선봉건왕조와 도꾸가와막부정부가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조선의 령토임을 문서교환형식으로 공식 인정한 《공문록》의 사료 등은 당시 일본인들이나 일본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섬이라고 인정하고있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중세 일본에서 제작된 각종 지도들에도 독도를 조선의 령토로 그려놓았다.

지도는 해당 나라의 주권이 행사되는 국토에 대한 령유권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여기에는 해당 시기의 령토소유상태가 명백히 반영된다.

중세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들인 《팔도총도》(1592년, 1802년), 《조선8도지도》(1785년),

《조선경도일본대판서국해변항로지도》(1748년), 《일본여지로정전도》(1832년) 등에도 독도를 조선의 섬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근대시기 일본측 자료들은 독도가 조선의 령토로 기록되어오다가 1905년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로 되면서 일본의 《섬》으로 조작한 사실을 반영하고있다.

근대시기에 일본정부의 외무성, 내무성, 태정관은 여러차례 발표한 자기의 국가공문서들에서 독도를 조선의 섬으로 명백히 밝혔다.

1869년 일본외무성이 조선침략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에 대해 작성한 공문서인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와 1877년 3월 정부의 내무성공문서, 1877년 3월 20일 정부의 태정관공문서 등에는 독도가 조선의 섬으로 기록되어있다.

특히 1877년 3월 20일 일본정부의 태정관이 내무성에서 제기된 공문서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 내려보낸 지시문인 태정관공문서에는 《질문한 죽도(울릉도)와 그밖의 한 섬(독도)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본방(일본)과 관계없는것으로 할것》*이라고 일본 명치정부의 최종결정이 밝혀져있다.

* 일본 명치정부 태정관 지령문 1877년

이 지령문은 3월 29일 내무성에 하달되고 4월 9일에는 시마네현에 전달되어 모든 절차를 끝냈다. 그리하여 시마네현으로부터 제기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령유권문제는 일본정부가 이 섬들이 조선의 섬이라는것을 인정하고 재확인한것으로 막을 내리였다.

근대시기 일본의 중요군사기관이었던 해군성의 자료들도 독도가 조선의 섬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있다.

명치유신후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정한론》을 국책으로 내세운 일제는 그 실현을 위해 각 방면에서 미쳐날뛰면서 그 앞장에 해군성을 내세웠다. 일본해군성은 조선침략을 위한 선차적준비로 조선의 령해와 섬들을 빠짐없이 장악한데 기초하여 각종 수로지들을 작성하였다. 일본해군성은 1886년 세계수로지인 《환영수로지》를 편찬하면서 제4편 조선동해안조에 독도를 리앙꾸르렬암(유럽에서 독도를 처음으로 발견한 프랑스배의 이름을 따서 리앙꾸르라고 함)이라고 표시하였다. 그러다가 1889년 《환영수로지》편찬을 중단하고 그것을 《일본수로지》, 《조선수로지》 등 나라별로 가르면서 1894년에 《조선수로지》를 편찬하고 여기에 독도를 리앙꾸르렬암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하였다. 같은 시기에 편찬된 《일본수로지》에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은것은 당시 일본해군성이 독도를 자기 나라의 섬이 아니라고 인식하고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근대시기 일본에서 제작된 많은 지도들에도 독도를 조선의 섬으로 표기하였다. 실제로 조선지도를 그린 《조선국세전전도》(1873년), 《개정신판조선전도》(1875년), 《조선여지전도》(1875년), 《조선전도》(1882년), 《조선국세도》(1882년), 《조선여지도》(1884년), 《조선국전도》(1877년), 《조선여지도》(1894년), 《조선지도》(1908년), 일본지도를 그린 《장중일본지도》(1876년), 《상밀대일본지도》(1896년) 등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우리 나라 섬으로 정확히 표기되어있다.

주목되는것은 일본지도들에 독도를 19세기까지는 송도(마쓰시마)로 표기하여 부르다가 20세기초부터는 영국사람들이 오기하여 잘못 본것을 그대로 옮겨 죽도(다께시마)로 원래의 울릉도이름과 바꾸어 부른것이다.

이것은 이 시기 일본인들이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 대한 사대의 영향으로 섬이름도

바꾸어부른 사대근성과 함께 이 섬들이 자기 섬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렇게 근대초기까지도 많은 문서들과 지도들에 조선의 섬으로 기록되었던 독도는 일체의 조선강점과 식민지화가 현실적인것으로 되면서 급전환하여 일본의 섬으로 외곡표기되기 시작하였다.

1904년 나카이 요사부로의 《리앙꾸르섬(독도)의 령토편입과 임대청원서》자료, 1905년 1월 내무대신이 나카이의 《청원서》를 받고 내각회의에 공문서를 제출한 《공문류취》자료, 1905년 1월 28일 《리앙꾸르(독도)편입에 대한 일본각의결정서》, 1905년 2월 15일 《죽도(독도)편입에 대한 일본내무대신의 훈령》의 지시문, 1905년 2월 20일 《시마네현고시 40호》자료 등에는 이전시기에 일본정부가 독도를 조선의 섬으로 기정사실화해오던것을 어떻게 제놈들의 섬으로 외곡날조하였는가를 말해주는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있다.

1904년 나카이는 독도에서 물개잡이의 독점권을 획득하기 위해 독도소유당사자인 조선봉건왕조에 독도임대청원서를 제출하려다가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정부의 회유와 강요로 자기 나라 정부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일본정부는 죽도(독도)를 일본에 편입한다는 결정서와 지시문, 고시를 몰래 날조하게 되었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시마네현고시 40호》는 일본정부의 지시를 받고 시마네현 지사가 지방신문에 자그마하게 낸 날조문건이다. 《시마네현고시 40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위 37° 14' 30", 동경 131° 52' 40", 오끼섬으로부터 85n mile 떨어진 해상에 있는 섬을 다게시마라고 칭하고 지금이후부터 본현(시마네현)소속의 오끼시마의 관할밑에 둔다.》

이 《시마네현고시 40호》는 나카이의 의도적인 독도《임대신청서》와 독도령유권을 강탈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고의적인 지시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하달된 공문서, 지시문이 강도적으로 외곡한것이므로 이 고시가 날조된것임은 두말할것도 없다.

원래 일본도꾸가와막부정부는 17세기말에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령토로 재확인하는 공문서를 조선봉건왕조에 전하였고 1869년에 일본정부의 외무성, 내무성, 태정관, 해군성이 련달아 독도를 조선령토임을 명백히 확인하였다.

일본정부가 독도를 자기의 령토로 편입하자면 국제법상 응당 사전에 이 섬에 대한 령유권을 가진 조선봉건왕조와 협의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것은 내외여론의 비난이 두렵고 독도가 사실상 자기의 령토가 아니였기때문이었다.

일반적으로 령토편입문제는 매개 나라의 중대사이므로 이에 대한 결정은 비밀사항이 아니면 중앙관보에 게재하여 공시하는것이 관례이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독도령토편입문제만은 국가《관보》에 게재하지 않고 수도 동경(도쿄)에 있는 여러 공사관들에 통보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이 문제가 비법적인 행위이므로 내외의 반대에 부딪치는것이 두려웠기때문이었다.

최근 어느 한 독도연구자는 시마네현 도서관에서 1905년 2월 22일부 《시마네현고시 40호》를 보자고 요구하니 그 호수만이 빠졌다고 답변한데 대하여 소개하면서 그 불법무효를 폭로한바 있는데 이것은 고시의 날조를 다시한번 보여준다.

또한 현대시기의 일본사료에도 독도가 조선의 섬으로 기록되어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출판된 과학사전들과 일본정부가 발표한 국가공문서들이 이를 확증해주고있다.

1960년 일본에서 출판된 《일본대백과사전》의 독도항목을 보면 《일본에서는 〈다께시마〉로 부르지만 조선에서는 독도라고 부르며 유럽, 아메리카들에서는 〈리앙클〉바위로 알려져있다. 조선에서는 15세기(1481년)의 〈동국여지승람〉에서부터 우산도란 이름으로 무릉(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된 령토)이라고 인식되어왔다. 일본에서는 에도시대(1603-1867년)에 어업가들에 의하여 그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지만 자국령토라고 생각하지 않고있었다.》고 기록되어있다.

《일본대백과사전》은 일본의 학계와 교육계, 정치계의 견해 및 과학성파들을 종합한 나라의 중요한 참고서이고 분량만 해도 30권이나 되는 방대한 대사전이다.

바로 이러한 나라의 종합적인 사전에 독도가 조선의 섬으로 기록된것은 현대시기에도 일본의 학계와 교육계가 독도를 조선의 령토로 인정하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또한 일본에서 1951년 2월부 《총리부령 24호》와 1950년 10월부 《대장성령 4호》에서도 독도를 일본의 부속섬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그후 일본은 1960년과 1968년에 이 두개의 법령을 개정하였는데 그때에도 독도를 일본의 부속섬에서 제외한다는 조항만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이것은 현대시기 일본인들뿐아니라 일본정부 역시 독도가 저들의 땅이 아니라는것을 스스로 인정하였다는 자료적증거이다.

이처럼 일본사료들은 독도가 조선의 신성한 령토이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줄뿐아니라 일본반동들의 독도《령유권》책동이 황당무계하며 강도적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일본반동정부의 독도《령유권》책동의 부당성은 다음으로 외국사료들에도 독도가 조선의 령토로 기록되어있기때문이다.

조선의 섬 독도를 기재한 유럽사료들에는 유럽인들이 18세기 중엽이후 동아시아를 침략하면서 조선동해를 항행하다가 울릉도와 독도를 직접 본데 기초하여 그리거나 이미 그린 옛 지도를 인정하고 모방하여 그린 옛 지도들과 항행길을 그린 해도, 항해길을 적은 수로지들이 있다.

유럽인들이 그린 옛 지도들로서는 《조선전도》(1721년, 1735년, 1846년), 《조선왕국전도》(1732년), 《일본 및 조선지도》(1748년), 《중국과 조선, 일본지도》(1749년) 《일본제국지도》(1750년), 《일본지도》(1750년), 《중국, 조선지도》(1774년), 《삼국총도》(1832년), 《중국 및 일본지도》(1837년, 1839년), 중국을 그린 《중국지도》(1794년, 1808년) 등이 있는데 이 자료들에는 독도를 우산도 또는 창찬따오(우산도=천산도를 중국식으로 발음한것)라는 명칭으로, 울릉도의 중국식발음인 판링따오라는 이름으로 경상도 평해앞바다 가까이에 그려놓았다.

프랑스해군이 제작한 해도인 《태평양전도》(1851년)에는 독도가 《리앙꾸르바위섬》으로, 《아시아동안 일본씨비리,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해, 조선, 남부일본》(1894년)에는 《리앙꾸르》로, 로씨야함대가 만든 《조선동해안도》(1875년, 1882년)에는 독도가 메넬라이(독도의 오른쪽 섬인 동도에 대한 로씨야식이름), 울리부차(독도의 왼쪽 섬인 서도에 대한 로씨야식이름)로, 영국해군이 제작한 《일본렬도》(1859년)에는 《호네트》(독도를 발견한 영국군함이름)로 기록하면서 조선반도의 가까이에 우리의 섬으로 그려져있다. 특히 1857년에 제작된 《조선동해안도》에는 지도이름 그대로 조선동해안에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표기하고 독도밑에 이 섬의 모양을 그린 그림까지 그려넣어 조선의 섬이라는것을 더욱 뚜렷이 보여줄수 있게 표기하였다.

수로지는 근대시기 유럽인들이 만든 항로기록으로서 프랑스인과 영국인들이 많이 제작하여 남기었는데 해당 수로지들에는 울릉도, 독도가 조선동해상에 그려져있다. 프랑스 해군이 작성한 수로지들인 《항해지침》(1895년, 1928년), 영국인들이 만든 수로지인 《중국 수로지》(1858년, 1861년, 1864년), 《중국해안항해지침》(1873년, 1884년, 1892년), 《일본, 조선 및 린접해안항해지침》들에서도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조선의 섬으로 기록되었다.

이처럼 유럽인들이 동아시아를 침략하면서 남긴 지도들과 해도들, 수로지들에는 독도가 조선의 령토로 그려져 그 령유권이 명백히 표시되어있다.

독도를 조선의 령토로 인정한 미국정부의 비밀문서가 2005년 4월 미국국립기록조사국에서 발견되었다.

1946년에 작성된 한 공문서는 제2차 세계대전후에 일본을 점령한 미국이 현지사령부를 통하여 1946년 1월 일본정부에 하달한 명령으로서 여기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령도에서 제외한다는것이 명시되어있다.

또 다른 문서는 1951년 6월 남조선강점 미군의 한 고위인물이 당시 남조선피뢰국무총리에게 독도를 미공군의 훈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통지하였는데 이것은 패망당시 일본을 강점하였던 미국이 이 섬을 일본령토가 아니라 조선의 령토로 인정하였으며 일본도 이것을 알고있었다는것을 의미한다.

한편 1995년 미국정부 국방지도제작소에서는 수로지 《항해지침, 조선 및 미국》을 제작하였다.

이 수로지에서는 리앙꾸르록스(독도-다케시마)와 울릉도를 조선에 소속된것으로 기입하였는데 거기에는 독도해설과 함께 독도그림 2점도 들어있다.

최근 미국에서 1946년에 제작한 지도가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독도가 조선의 령토로 그려져있어 파문을 일으킨바 있다.

오늘 일본반동들의 독도《령유권》책동은 극도에 이르러 마치 1876년에 《강화도조약》의 강압체결로 침략의 발을 붙이고 1905년 《을사조약》의 날조로 조선을 강점한 그때의 전야를 방불케 하고있다.

일본극우익반동들의 독도《령유권》책동은 일본군국주의망령들의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전주곡으로 된다.

일본반동정부는 지난날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며 조선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령유권》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아직까지도 독도문제에서 일본과의 관계악화를 두려워하며 비굴한 자세를 보이고있다. 남조선집권세력이 지금처럼 친일사대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국행위를 일삼으며 우리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해친다면 그것은 천추만대에 용납 못할 반민족적죄악으로 온 민족의 단호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듯이 일본반동들이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는것을 주장하면 할수록 놈들의 비렬성과 악랄성이 더욱 드러날것이며 독도《령유권》책동은 파산을 면치 못할것이다.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조선의 섬으로 남아있을것이다.

실마리어 독도, 울릉도